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物動計畫과 國民生活

一

十五年度 物動計畫은 年度初인 四月一日부터 實施되어야할 것이나 戰時經濟의 發展的諸條件에다가 歐洲大戰의 影響을받아 編成難에 빠지고, 變動無常한世界情勢를 反映하여 再編成을거듭하다가 企畫院에서 겨우成案을 어덧슴으로 十四日閣議에附議하여 그大綱을 決定키로되엿다고 傳한다。企畫院은 이大綱에從하여 計數整理한後 今月下旬에 具體的으로 決定하고實行에 옮길터인데 이번物動計畫에잇서 特히重要視한것은 國民生活必需品에 對하여 그生產配給에關한 綜合的計畫이 樹立된點에잇다。

二

物動計畫에잇서서는 支那事變에要하는 軍需品을 圓滑하게調達하는 同時에 國防充實에 萬全을期하기 爲하여 그것에 所要되는 物資를確保하고 國防計畫遂行의 基本力이되는生產力을擴充시키기爲하여 이에要하는資材를 대이어야 하는것임은 다시말할것도 업는일이다。어떠케해서 一面戰爭、一面建設의 目的을 遂行할까 하는것이 지금까지의 物動計畫의 全部이엇섯다。그리하여 物資不足의소리는 二·二六事件以後 陸軍의立案에依한 劃期的軍備充實計畫에伴한 膨大한國防豫算을中心으로 十二年度豫算編成當時에 이미約束되엇던것이요 이豫算이 其後修正은 되엇섯스나 그根幹에는 變함이 업서 政府는 그所要物資를 確保키爲하여 物動計畫을 立案實施한것이 비롯이엇다。初年度인 十二年度 物動計畫編成의 直接動機는 爲替管理를 直接對象으로한것으로 當時의 物動計畫은 軍備充實計畫遂行에 重點을두고 輸入物資를 軍需生產用及軍需生產力擴充用에 優先的으로配給하는것이 그主任務이엇섯다。따라서 一般民需部門은 其後에도 어딘으로 그配給量이 配定되며 지나지못하고 分配機構가 整備되지못하엿섯다。純民需는 生活必需品일지라도 直接關係업는 것이라하여 計畫에서除外되어엇섯던 것이다。

三

그러나 一國經濟의 全面的計畫化가업시 軍需産業、輸出産業만의 計畫化만으로써 戰時經濟體制가 完成되엇다 할수업는것이오 이러한 脆弱性을 가진物動計畫은 昨年下半期에잇서米炭을 爲始한 生活必需品의 偏在不足을 招來하고 一內閣을너머트리게까지 事態가 重大化햇섯다。그러므로 이번新物動計畫에 잇서서는 昨年에쓴아린經驗을 거울삼어 十七品目의 重要資材外에 米를 비롯한 生活必需品의 生產配給의 綜合的計畫을 세우게된것은 當然한일이오 晩時之歎이 不無하다。新東亞建設의 重任을 急速히解決키爲하여 不足한 物資로써 最大限의 効果를收함 計畫을 세운다는것은 말가치 쉬운일이아니며 다가 歐洲大戰擴大로 貿易及貿易外收入激減、對外爲替市場變動、輸入杜絶、輸出不振等 未曾有의難境에 處하여 戰爭과 建設을兼行하는데잇서는 物資를 대기는 여간어려운일이 아니다。이때에잇서 國民生活必需品까지計畫化한다는것은 一層計畫의 複雜化를 意味하는것이지만 一時的統制에서 恒久的根本的으로 統制를 强化하며 國民生活安定을 圖하는데잇서서는 全體的物動計畫이어야할것은 再言을不要하는바이다。

四

一般民衆에게 徹底하게 計畫化하는데는 國民生活의 統制를 實히하며 그것을 實行케함이 爲先되고 計畫된物資에있어서 ……

獨軍、巴里에入城
十四日午後에遂降伏

【伯林十四日發同盟至急報】總統大本營은 十四日午後 獨逸軍部隊는 續續巴里에 入城中이라고 公表하엿다

【伯林十四日發同盟至急報】獨逸政府는 十四日午後零時半 非公式으로 佛國의 首都 巴里는 드디어 降伏하여 獨逸軍隊는 續續 巴里市內로 入城을 開始하엿다고 發表하엿다

西班牙도突然軍事行動
모록코의탄지에르港占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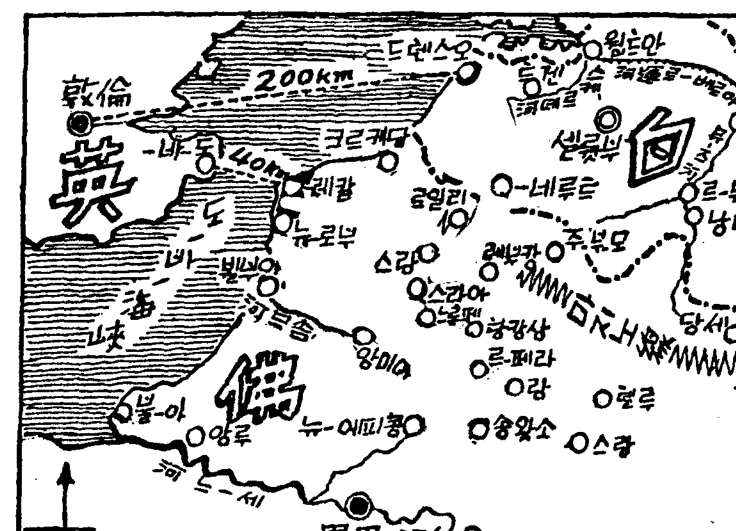
【紐育十四日發同盟至急報】倫敦B·B·C報道에 依하면 西班牙軍은 十四日突然 지브랄타르對岸 모록코의 國際都市 탄지에르港을 占領하엿다

佛軍、巴里撤退를公表

【두르十四日發同盟至急報】佛國軍司令部 十四日發表

佛軍은巴里를 撤退하엿다

【華盛頓十四日發同盟】目下佛國의假首都두르市에 滯在中인 비트르駐波蘭米國大使는 十四日午前一時(日本時間十四日午後三時) 電話로서 國務省에 對하여『獨軍이 巴里城門에 突入하엿다 市中은平靜하다』고 在巴里브릿트大使의 報告를 傳達해왓다 但詳細는 아직不明이다



駐佛米大使 對獨通告文

【華盛頓十三日發同盟】米國務省은 十三日 駐佛大使가 巴里의 非武裝性에 關하여 獨逸政府에 보낸 通告內容을 如左히 發表하엿다

巴里는 이미 非武裝都市이라고 宣言되어 예랑巴里防衛軍司令官麾下軍隊는 目下 撤退中으로 巴里의 治安維持及人命財産保護에 關하여는 온갓 可能한 手段이 講究되엿다 卽憲兵、警官、消防夫는 尙今도 巴里에 殘留하여 당츠將軍이 巴里衛戍司令으로서 同地에 남어잇는데 다만 同將軍麾下에는 一兵도업고 그指揮下에잇슴은 憲兵과 警官이다 余는 在佛外交團代表者 與海軍武官과 參事官及 書記官六名과 함께 巴里에 남어서 巴里城이 一名의 人名도 損傷치안코 行해지도록 온갓 支援을 提供하려고 希望하고잇다 그런데 本通告는 모두 당츠新衛戍司令官의 個人的要求로서 된것이다

佛軍總退却開始
獨軍、몬메디要塞占領

【伯林十四日發同盟至急報】獨軍司令部는 十四日午後 巴里로부터 東方마지노 要塞線에 이르는 全線에 亘하여 佛軍은 總退却을 開始하엿다고 發表하엿다

【伯林十四日發同盟至急報】獨軍司令部는 마지노線攻擊의 獨軍이 그一角인 몬메디 要塞를占領하엿다고 十四日午後發表하엿다

【伯林十四日發同盟】獨軍司令部는 十四日早朝 獨軍은 자르地區에서 마지노線의 總攻擊을 開始하엿다고 發表하엿다

英國空軍 北佛戰線서活躍

【倫敦十三日發同盟】英海軍省發表

一、我爆擊隊는 루앙附近의獨軍密集部隊에 對하여 集中攻擊을 加하고 그同時에 空中戰을 敢行한結果 獨機二機를 擊墜하고 我機亦三機를 잃엇다

一、我空軍은 十二日海岸線으로부터 아르덴느에 이르는 獨軍陣地를 攻擊하엿다

一、我空軍爆擊隊及海軍航空隊는 브르조附近에서 獨驅逐艦及水雷艇隊를攻擊하여 一隻을 擊沈하고 二隻에 損傷을주엇다

一、我戰鬪機隊는 十二日 ……

大本營에行幸
陸大卒業式에도臨御 十七日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來十七日午前九時 宮城御出門 靑山의 陸軍大學校에 行幸하옵시고 第五十三期 卒業式에 臨御하옵실 御豫定이시다 ……

李王殿下 四國路御視察

【東京電話同盟】李王殿下께서는 ……

米首腦緊急會議
佛首相援助要請의反響

【華盛頓十三日發同盟】레이노佛首相이 드디어 米國의援助를 要請하엿다 ……

伊佛兩軍遂衝突

【羅馬十四日發同盟】伊軍司令部는 十四日 알프스戰線에서 開戰以來 最初의 伊佛兩軍衝突이 일어낫다고 發表하엿다

【羅馬十四日發同盟】伊軍司令部 十四日午前十時發表

一、알프스戰線에서 伊佛兩軍小部隊間에 開戰以來 最初의 衝突이 잇섯스나 敵軍의企圖는 我軍의反擊에依하여 挫折되엇다

一、中部地中海에서 敵潛水艦은 我艦隊에 對하여 攻擊해왓스나 何等成果를 엇지못하고 도리혀 敵潛水艦一隻을 擊破하고 他一隻은 致命的 損傷을바덧다

一、我空軍은 튜니스 地方의 敵空軍基地를 空襲하엿다 ……

土耳其의反伊論調

【이스탄불十三日發同盟】獨土通商條約의 成立은 土耳其의 新外交方針을 暗示하는것으로 觀察되어 各方面에 大衝動을주고 잇는데 官邊側에서는 十三日 土耳其는 英佛土相互援助條約을 꼿까지 遵守할것을 再言明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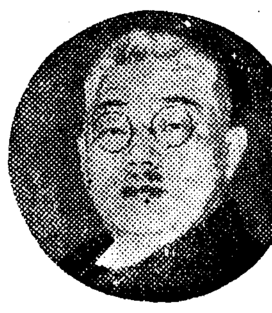
伊蘇重要會談

【莫斯科十三日發同盟】……

徹底抗戰을繼續
英、佛에"멧세이지"發送

【倫敦十三日發同盟】……

英佛領土內獨伊權益
帝國政府擁護를應諾
有田外相英佛大使에通告



【東京電話同盟】伊太利는 參戰에依하여 英佛과 敵對關係에 突入하엿스므로 英佛領土內에잇는 伊國의 權益保護에對하여 帝國政府에 依賴해왓고 또 獨逸도 일직부터 同樣의 依賴가 잇섯는데 이지음 帝國政府는 이를 모두 應諾하기로 決定하고 十四日 有田外相으로부터 在京 英佛兩大使에게 다음 各地의 獨佛權益의保護應諾을 通告하엿다 卽 獨逸에 對하여는 在加奈陀、香港、南阿、콜롬보各權益 伊太利에 對하여는 在新嘉坡、香港權益、……(寫眞은 有田外相)

토리노空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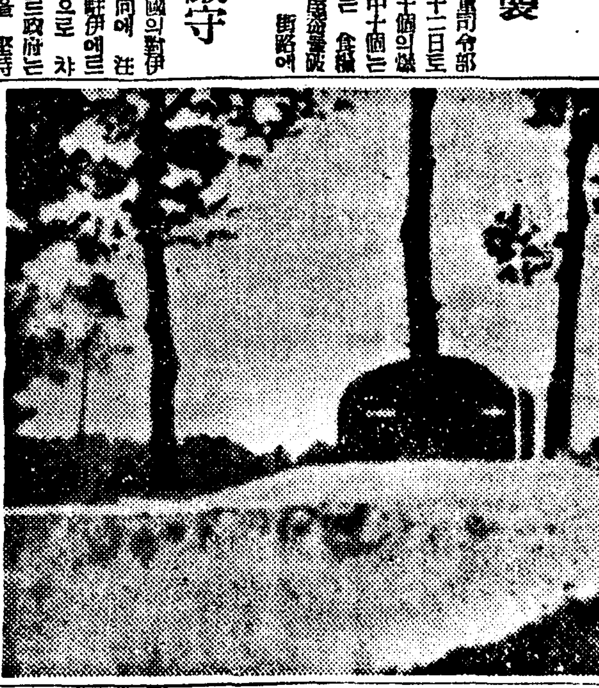
【羅馬十三日發同盟】伊軍司令部 ……

에르中立嚴守

【羅馬十三日發同盟】……

諸威戰局完結

【伯林十三日發同盟】……



總退却을 傳하는 마지노線

蘭印에抗議文
西歐亞局長和公使에手交

【東京電話同盟】……

蘭印側辯明

【바타비아十四日發同盟】……

今年度物動計畫全貌

【東京電話同盟】今年度의 戰時經濟統制를 强力히 規正하는 十五年度物動計畫(今年四月부터十六年三月末日까지)은 十四日定例閣議에서 企畫院 作成의 計畫大綱이 原案대로 決定、그計畫全體의 事務的計數整理를 完了한後 … 附議決定하기로 되엇다 物動決定과 同時에 政府는 企畫院總裁 …

◆物資需要의部面
A、陸軍關係軍需
B、海軍關係軍需
C、充足軍需(東洋書 充足시키기 爲한 民需間接軍需)
D、生產力擴充用
E、輸出用原材料
F、官需官廳需要

◆物資供給의部面
A、國內供給
가、國內生產
나、國內在庫
다、資源回收
B、輸入

鐵相、輸長과要談

【東京電話同盟】……

近近阿部大使에訓令
閣議서도日支基本條項承認

【東京電話同盟】日支國交調整에 關한 基本條項은 去十二日臨時閣議에서 最後的檢討를 하엿다 ……

米、注意喚起
重慶爆擊으로
그루大使、外相會見

【東京電話同盟】그루駐日米國大使는 十四日午後五時三十分外務省으로 有田外相을 訪問、……

重慶滇緬借款要望

【倫敦十三日發同盟】……

湖北省政府 恩施로移轉

【香港十四日同盟】……

屑鐵輸入에 國家補償制

【東京電話同盟】……

◆人事·集會◆

市況(十四日)

廣告

今期의 보-나스
保險으로 貯蓄!
NS 日淸生命
本社 東京 丸の內

國民中學講義錄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辭典拾冊 合本の一圓五十錢 分冊は各十四錢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字くず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文學辭典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特別無代進呈 模範日記

手紙上手は立身出勢が早い!
▼出征兵士慰問の手紙を始め其他手紙の事なら何でも解る大好評の手紙の本

新案手紙大辭典

景品進呈
いろは引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四
合資會社 國民書院日報係
振替大阪五壹六貳壹番

三色旗에는말이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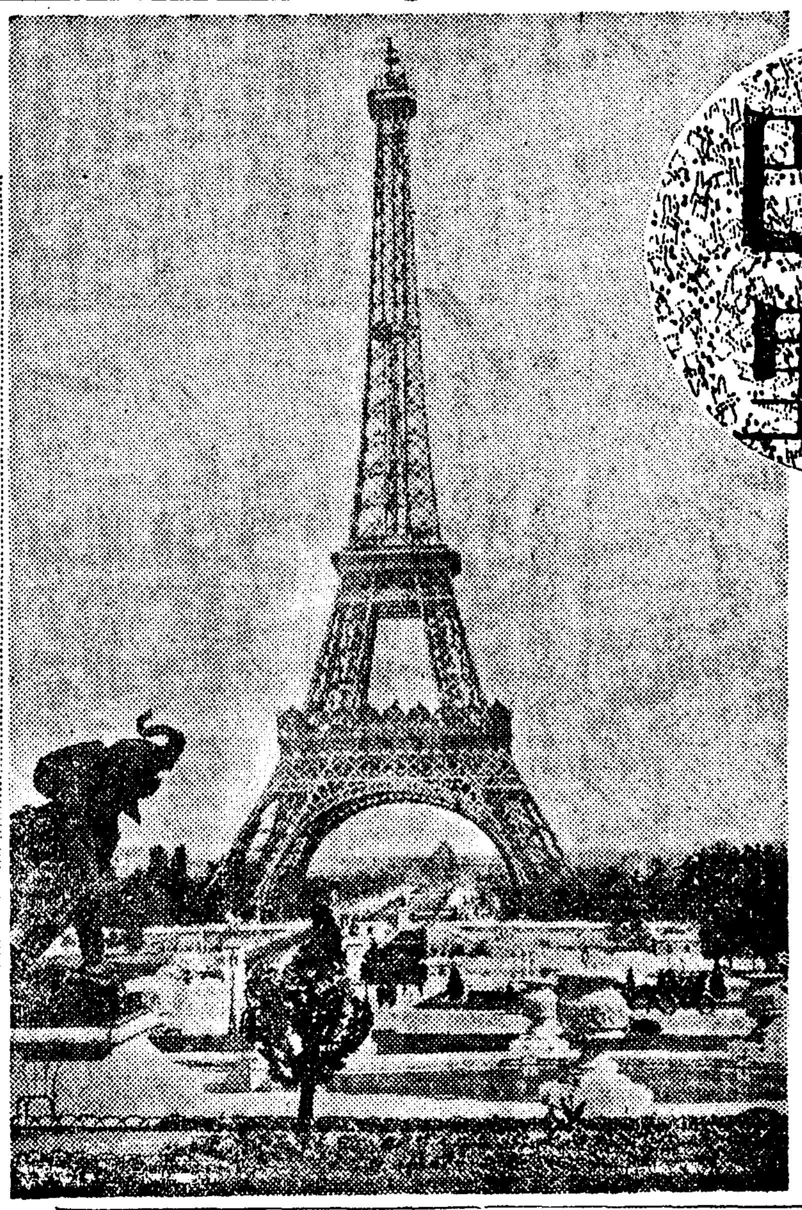
沈鬱속의佛領館은 老兵士"류"氏의禪室!

館員들은壁上의地圖만凝視

독일군전차대가 마침내 예술개개이고 상쾌하게 내려쪼이는 ……『파리』시내에 돌입하엿다는『뉴-스』가 전한 십사일낫 부내합정(蛤町)어덕우의 불란서영사관아은 날세가맑 여름날해볏가운데도 고국의와곱을 의그림자가 지러 수색(愁色)파 초소의비치 도리어엇섯다 밤나무며 등나무가 욱어진조 ……

며칠전 독일군이『파리』를농락하려고 오십키로까지 처들어왓다 삼십키로까지왓다 마침내 십오키로까지왓다던 …… 『다음뉴-스를 오는대로 곳 알려달라』고 일 ……

이날아침일 영사『류』는 바람든지도모르다 그러나 정오를 지난지 얼마 안되어 기적의『뉴-스』가 아니라『독일군의 파리돌입』이란비보가 날러들어오고잇는것이엇다 ……



(사진은 파리의 에펠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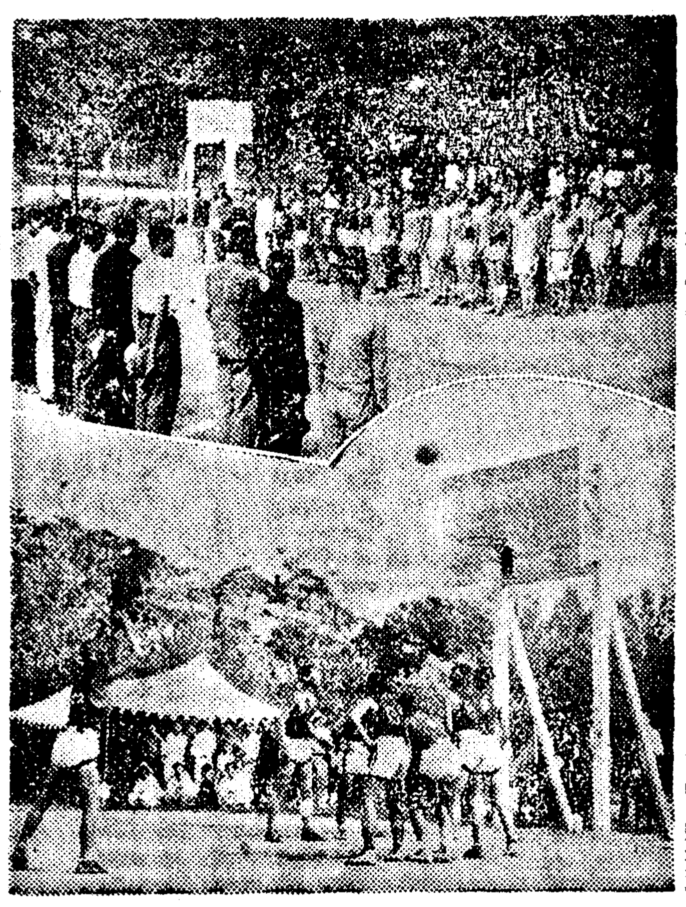
陷落直前의 巴里

硝煙속의避難行列

沿道에선돈이잇서도食糧을어들수업다!

同盟特派員巴里脫出記

【투르十三日井上同盟特派員發】 칠에『투르』에 도착하엿다 어지하고 잇스므로 피란민들이엽설마그럽리야 잇스랴하고 잇섯 제밤은 수도『샤토』의 교외산길로 모여들어 곳곳에 대호잡스나 매일가치 절박하여지는사 린속에서 동일 공군의 폭격에을 이루엇다 피란민의 거지반태로 드디어 신변이 위험하다 ……



匪團이突然 開拓團本部襲擊

滿洲瑞穗村被害狀況發表

【新京十四日發同盟】 지난사월십팔일에 제삭자로 서수촌(瑞穗村)개척단본부에 비적 ……

開拓總局富局談

지난사월십팔일 오후열두시경에 제삭자서수촌본부에 약삼백명의 비적이습래하엿다 ……

熱情的인佛國民性

外華를말하지만其實은經濟的觀念이强烈

延專講師 金善琪氏談

십사일오후에 독군이 파리를 입성한 보도를가지고 최근 파리에 유학한 연전(延專)강사 김선기(金善琪)씨를 계동정(桂洞町) 자택으로차젓다 ……

在留朝鮮人 그들의安危는?

殺人事件 哈爾濱에서發生

馬場町에猛火 女子二名火傷

십사일오후네시 십분쯤 부내 마장정(馬場町) 사백팔십오번지 ……

電車에轢傷

貯蓄週間에 特別放送프로編成

趙鼎允氏 逝去

五億貯蓄에 다함께協力!

貯蓄强調週間 第一日

延專主催、本社後援 中等籠球大會

昨日盛況裡에開幕

延禧專門學校主催 本社後援의 第九回 全朝鮮中等學校籠球大會는 十四日午後三時二十分에 …… 開幕되엇다 ……

協實 36	(1917…1223)	15	信聖
中東 33	(1520…811)	19	徽文
京商 64	(4519…04)	4	商實
培材 24	(168…154)	19	普成
東星 21	(156…146)	20	電機
京師 35	(2015…58)	13	漢商
養正 18	(126…98)	17	英彰
儆新 57	(3225…04)	4	善隣

中等籠球리-그 東星軍이制覇

第一位 徽文 七十八點 / 第二位 儆新 七十六點(勝校七) / 第三位 養正 七十六點(勝校六) / 第四位 培材 六十七點 / 第五位 中央 六十六點 / 第六位 普成 六十五點 / 第七位 協實 五十五點 / 第八位 大東 二十一點

日本軍또活躍 東亞競技關西大會

卓球 / 籠球 / 野球 / 蹴球 / 庭球

職業野球리-그戰績

夏期學生籠球리-그

普專 107 (5948…1412) 26 法專 / 普專 73 (4132…308) 38 大學 / 齒專 58 (3226…2317) 40 中專

高商主催中等對校庭球大會對陣決定

朝鮮學生陸上競技對校選手權大會

今日의天氣 雲時時晴

五行公司 淋疾梅毒

強性強精藥 早漏

朝鮮殖産銀行

젖잘나는약

虱과毛虱

洋裁를…自宅에서배우는 一步前進한教授法

洋藥漢藥 藥種商講義錄 朝鮮藥業研究社

便紙에關한것은무어던안다 特別景品付大特賣!!

便紙大寶典 日本一完備한 これは便利だ

無代進呈 大特價一圓六十錢 大景品

口紅 クロバー 赤い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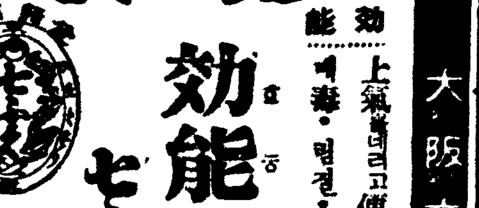
新鮮味力의六色! 生生한健康美의十八色!

效力本位 肩腰의결림 류-마치스 過勞의아픔 胸咽喉之痛

齒痛 곳낫는 今治水

못견디게괴롭고 짜릿짜릿아파서 잠시도못참을괴로운齒痛입니다 바르면곳낫는今治水를잇지마시고 不時의齒痛에準備해주십시요

今も昔も 効能で賣れる ひふくや本舗



本家 七ふくや 伊藤長兵衛

中部版

貧民戶稅代納 李庫來氏의 特志

天井不知의 기와갑
價格統制가 업는 것을 奇貨로 一年동안에 倍로 올라

【仁川】공정가격이 업다고 ... 일반수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잇다 ...

醫療機關不備

【江華】여름이되면 ...

模範理髮師表彰

農民日記念移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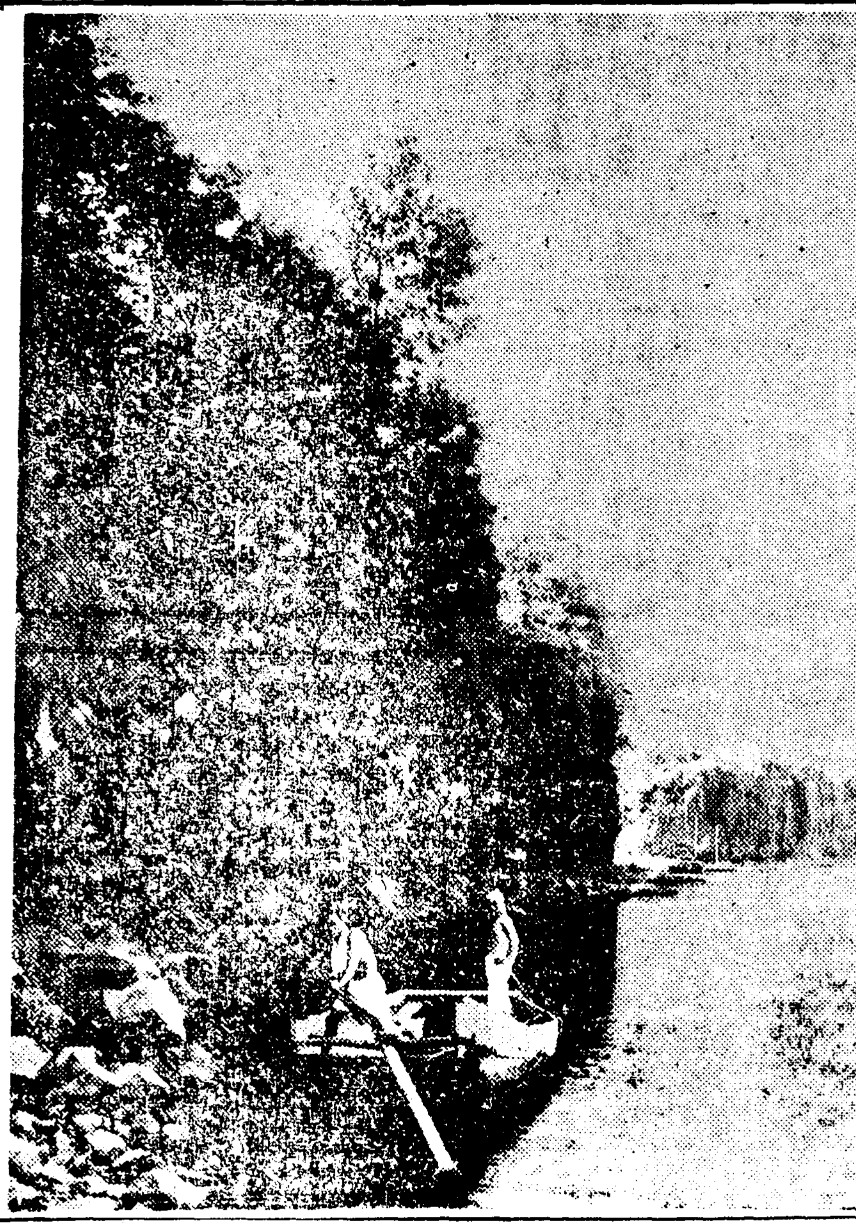
忠南愛國婦人會員 二萬名을肉薄
總人口의 一割五分餘占領

不德酒類商續出
麥酒燒酒公定價無視 仁川署에서 嚴重取締

【仁川】맥주와소주가 잇는것이 ... 한정으로 날개도치게팔리는 이때에 품귀속이큰원인이되어 중간상인이나 특약점들이 모두가 통제가격을무시하고 암취인을하는등 별별수단으로 폭리를취하여 일반소비자로서는 ... 경찰의 감시가 ... 인천서에서는 ... 중정(仲町)에는 ... 서경정(西京町)에잇는 소주소매 ...

貧民戶稅代納

溫陽商工會 運動會開催



凉味차저 (臨津江赤壁)

仁川公會堂建設
昭和町에 五萬圓의 工費드려서 阿部泰輔氏府에 寄附

演藝의 밤 盛況

巡廻創氏相談

國語普及에 盡力
各處에 講習會를 開催코 努力 野村弘遠氏의 美擧

木浦支廳管內創氏 二千五百餘件

歐洲視察講演開催

九個河川의 敷地
貸附만도 千七十五件 五月末現在咸南道의 調査

建築煉瓦會社創立

東海沿岸의 水溫
鰮廻游에 最適溫 咸南試驗船北洋丸報告

婦人講習會修了式

勞務調整萬全對策
全家動勞、共同作業奬勵等 咸南竹久社會課長談發表

警防團員의 美談兩題

咸南商界混亂으로 轉業、廢業者續出!
道商工課서 商業免許制採擇을 各道産業課長會議에 提出할터

鹽原學務局長 廿一日城津視察

聯盟員을 總動員
貯蓄運動을 積極展開 精動全北聯盟서 一週日間

【全北支社發】국민정신총동원 ...

一、聯盟員을 總動員시켜 ...
四、聯盟은 實踐躬行率先垂範의 實을 表示할事
五、貯蓄運動은 長期建設의 重大한 要素이므로 一層國民精神의 昂揚을 圖할事
六、戰勝産業方面에 對한 貯蓄增加 ...
七、聯盟指導者는 各官廳 金融 ...
八、俸給 給料 賃銀 賞與 手當 地代家賃 配當 年金 恩給等의 控除貯蓄을 勵行할事
九、貯蓄運動은 個人보다 團體的 奬勵에 ...
一〇、物價政策에 對한 一種의 不安 ...
一一、聯盟員으로하여금 勤勞精神을 ...
一二、婦人聯盟員의 自覺과 ...

銃後道民의 赤誠
忠南道民獻金卅九萬三千餘圓

江華邑에 再歸熱

草刈選手權大會

主婦活動은 成功
特設防護團은 統制업서 遺憾 柳本咸興府尹의 講評

【咸南支社發】이번 함흥지구의 방공훈련에대하여 ...

一萬貫出廻豫想
楊平郡春繭共販開始

社告

謹告

大連支局 ...
南原支局 ...
昌道分局 ...
石塘分局長 崔 ... 植
信川支局 ...
字部支局 ...

授乳中의 어머니!
特히 榮養에 注意하라
效果 本位
產後에는아모리튼튼하든분이라도 出血等으로 體重이줄고 몸이만히衰弱해집니다。게다가 더욱 授乳를하게되니日常食餌만으로는 榮養이不足하여 도저히 부지하기 어렵습니다。萬一 이때에 充分한榮養을 補給치못하면 產後衰弱이甚해저 젓이不足되고 따라서 乳兒發育이不良하게됩니다。
各種ビタミン·鐵·マンガン綜合
ハリブマルト
適應症 包裝 335瓦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
大連·米國紐育·天津·奉天·臺北
(全國有名藥房販賣)
HZ-40.C

雪の農村に描く清純の詩情!
美しき隣人
松竹大船 特作映畫
主題歌 キング、レコード
近日上映
明治座

國防色羅紗專門
卸商 ミナト羅紗店

藥으로滋味나는돈모으기
製藥士 養成講義
무슨藥이라도自由로製造
◇立身成功의門
入學案內 (無代進呈)
東京市 日本通信製藥學校

蠶島遊園地
山水具備하고 園內各種遊戲場 大小人풀 江岸에는遊船보-트具備
綠蔭이茂盛한
京城軌道株式會社

產婦人科 醫學博士 金錫煥
京城府 ...

改姓 改名
內地人과가튼이름으로 고칠수잇는
이름을짓는法
姓名學과字劃字音의關係
姓名과運命의神秘的關係
名前の附け方
東洋姓名學會
添附進呈

不老長壽 强精補血 更年少藥
百補丸
百補丸會社

長篇小說

青春茂盛 (80)

李泰俊 作 鄭玄雄 畫

세사람은

한사람과두사람(一)

이날저녁에 『그ー지천로』은 심과 치권을 제국『호텔』에초대하엿다。치권은 우선의 만찬조대에 은심을 따라 나섯다。할은 은심에게나 치권에게나 다가치 익수로 마서수엇다。제비가치 날신한 야회예복을 입고 담배갑을 열더니 은심에게

『폴리ー쓰』

하고내여 밀엇다。

『오! 에스큐스미』

『전 못 먹는대두요』

하고 이번에는 치권에게 내여민다。

『나두 못 핌니다』

『그러스므니까!』

할은 자기만 가느스럼한 여송연을 한대 피여 물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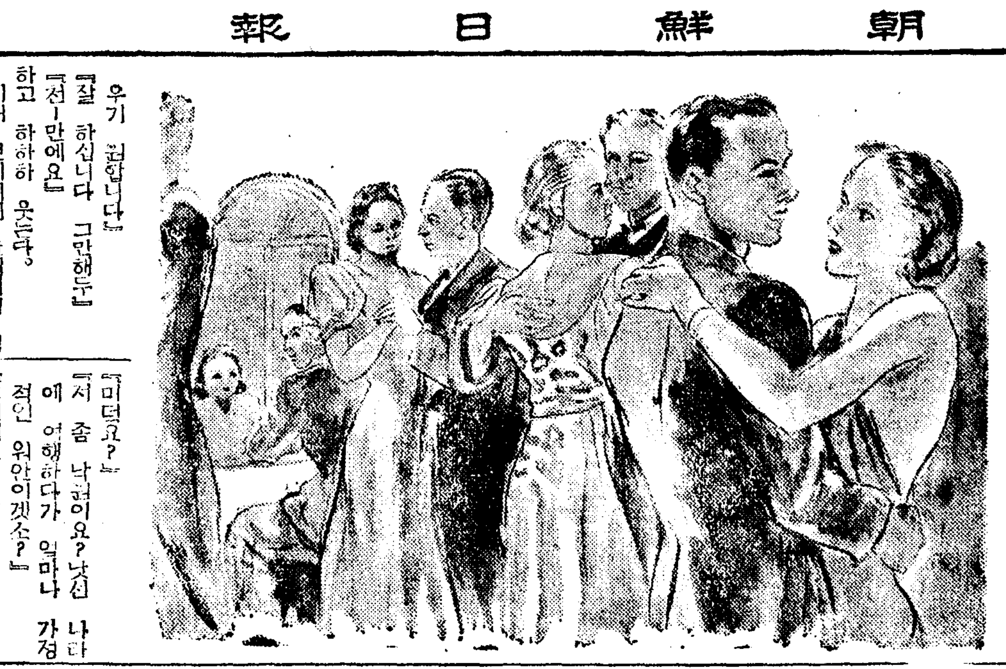
『못 먹 못 핍 하가지 말입니까?』

한다。

『위담은 피더고해야옳지만 먹는다고도합니다』

하고 치권도 될수잇는대로 유쾌하려한다。

『미쓰킴 서울말 만히 나배요』



우기 힘합니다』

『잘 하십니다 그만해두』

『전ー만에요』

하고 하하하 웃는다。

이내 뻔이에게 안내되어 식당으로 갓다。중앙에 잇는 큰 연예장(演藝場)이엇다。식탁은 가녀으로만 삥 둘러 노혓는데 벌써 비인 테블이 얼마 업섯다。

한참이나다른사람들의 식탁을 지나서야 할은자기식탁의 번호를 차젓다。할은일른 걸상하나를빼이더니 은심이가 들어서자 공손히 밀어너허 안저준다。은심은 때 유창하발음으로

『대큐ー』

하고는은 치권을저다본다。치권은 못보게『홀ー』안의 풍경으로 눈을 옴겻다。거이 반수가 서양사람들이다。마즈편이 층밸코니에서는 언재부터인지나 즉하나 유량한 관현악(管絃樂)이 울려오고잇섯다。

이내 음식이 날러왓다。할은 뻔이를 불러 세우고、은심과치권에게 무슨 술을 조하하느냐고 물엇다。

둘이 다 맥수도 못 먹는다고 하니까 자기는그럼 꼭 한잔만 먹겟다고 은심에게 양해를어드며 무슨『카델』을 시켯다。

식사가 바이나 진행되엇슬가할때다。음악이 갑짜기 소리가 커지며 곡조가『왈즈』로 변해다。

어데를、서테불에서 우루루 일어를 난다。할도『내프킨』을얼른 접더니 일어섯다。일어서더니 받잔 남기여면『카델』을쪽 드리켜고、은심에게

『머이 아이 해브 되스 헌ー?』

하고 출추기를 청하는것이다。비인『스캐른링』가던『홀ー』안은 어느듯 날신한 출의바다를 이루는것이다。

『저 출을 몰라요』

『조곰도?』

『네 조곰도 못 춰요』

『그러면 우리 미국 갈때 배에서 배우면 조캐슴니다』

하고 할은 다른 식탁을 둘러보더니 짝이 모자라 혼자 남엇는듯한 서양여자에게로 간다。서양여자는 이내 일어서 가치 나서수엇다。

할이 서양여자와 출추는것을 은심과、치권은 다소 쓴 우슴으로 바라보앗다。

『선생님?』

『네?』

『선생님두 딴쓰 못허시죠?』

『미쓰고두 못허는걸 내가 더구나!』

『딴쓰 해두 조치 안허요?』

『딴쓰가 훌륭힌 미덕이 잇군요』

『미더요?』

『저 좀 나허이요? 낫선 에 여행하다가 얼마나 가정적인 위안이겟소?』

『그러게요! 어떤사람이든지서로 춤을 청할수잇나보죠?』

『그러니까 미쓰고는 어서 배워야겟군요』

『남 그런 걱정허시래요?』

하고 은심은 눈을새쭉한다。

음악이 꾸낫다。추던 사람 그냥 안섯던 사람 모두 박수를 한다。은심과 치권도 박수를했다。할은 땀을 씻스며 자랑스러운 얼굴로 돌아왓다。

이내 음악은 다시 시작되엇스나 할은 나가지 안헛다。

식사를 얼른 꼿내고 이들은 이날밤차로 서울을 향하여 동경을 떠낫다。

기차에서도 할의 은심에게의 친절이란 극도의것이엇다。무슨 행동이든지 자기보더 먼저 하는일에서 늘 은심의 일거일동을 지키고 잇다가는 눈치빠르게 의무를 이행하엿다。은심이가 일어서면 나갈자리를 내여주고 돌아오면 자리에 먼지를 털어주고 수건이나 책을 떠려트리면 날새게 집어올리고 버선노한테 구두를 신으면 끈까지 매여주려하엿다。은심은 그런 서양식 친절이 친절이라기보다 예절이 도리어 귀찬햇다。단둘이도 아니요 여페서 치권이가 보는것이 부끄럽을뿐만 아니라 미안하기도 해서다。

壯士의 恨 ⑨

庾秋山

입중군은 용이의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사람의 자식이란 꼭 내혈정을 바다나 온자식만 자식이아니요 남의 자식이라도 어려서부터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며 안어주고 업어수어 눈물로 스물 씻겨 기른공이 여간 혈육바든 부모의 공만 못하게 아니요 도리어 그은혜는태산보다 클것이요 하해보다 기플것인즉 저애가 이다음날 그은혜는 출분히 갑도록 가르치려니와 또저애 부친되는 홍참판이라는 이가 무슨 결심하는배 잇서서 그런 당부를 햇겟지만은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반드시 양반되라는 법은 업는즉 그것도 염려할게 업다는여러가지 말을해서 용이의 마음도 서운이 안심되게 타이르고 다시 점룡이를 바라보며

『이애 점룡아 너도 지금네 이야기를 정녕으로들어서 좀 놀다온 생각이 잇슬테이나 사람의 운명이란 그러케단순한것이 아니야 또 사람이 특출하게 난 사람은네 일과가치 풍파가 만흔것인테 너도 기괴 생각할것은 너를 이세상에 탄생시켜준 부모도 잇스려니와 너를오늘까지 길러준 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욱 고마운 부모로 알아서 후일에 그 은혜를 만분지 일이라도 갑도록 결심을 해야해 웅 알아듯엇지……』

점룡이의 어린 마음에는 용이의 길다란 이야기에 정신을일코 눈만 끔벅끔벅 하고 안서듯다가 입중군의 울엉찬 목소리에 새로 정신이 돌며 비로소 코스등이 저릿저릿한 느낌을 바다구슬가튼 눈물을 뚝뚝 떠러트리며

『네 하라시는대로 하겟소외다……』

하고 다시 용이를 처다보고

『아버지! 고만쇠다 어머니 은혜도 안이저버리겟쇠다』

이 말을 겨우 하고는 점룡이가 목을 노하 엉엉우는 통에 용이는 물론이요 부억에서 일을 하던 용이의 마누라도 목을 노코 한참 울엇다。

이리해서 점룡이는 입중군을따라 무등산 좌선암으로 가게 되엇다。

그런데 이 입중군이란이는 누구이가 하면 성은임이요 이름은 경업인데 원래 기운이 장사인데다가 무예를 공부해서 무과에 급제가 되어 방금 개성에잇는 천마산성중군으로 되라앳던 산성을 훌륭하게중수를 다 해노코 나라에휴가를 어더 고향인 충주달천손에 잠깐들넛다가 다시 이충무공 사당에 참배도 할겸 전라도남도 꼬을 순회해서 훌륭한 인물도 만나볼겸 길을떠나서 먼저 무등산에올나가 김도령가튼장사의 놀던요술 차저보고마 최그산중에 좌선암이란 암사가잇는것을 다행히여겨 담력을 더욱연마할곳으로 참선공부를 얼마동안 하다가 이르러 이전충무공의 자랑할만한 자취를 차저오르라 날 충무공사당에 참배를마치고 유명한 녹진나루가에 내리랄하는 소리를듯고 들의 지꺼리는 중에 여러사람 거동을 멈추고 유심히바리 보다가 뜻밧게도 점룡이의 놀라운기운을 보게되어 뜻 잇는 입중군은 그대로지내처버리지 못하고 점룡이를 다려다가 장래의 훌륭한인물을 만들어 내리라는생각으로 다려가는것이엇다。

입중군은 그때에 나이가 설흔둘로 한창 씩씩한 장년인데다가 무예도 삼십육계를 모두 놀줄하엿슴데에다 니리 오히려 자기의 도략 한 방법을 연구하는터이라 점룡에게 대해서는 마치 용이의 등애다가 날개를 부쳐 주는격으로 참 점룡의 장래는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엿다。

그런데 입중군이 점룡이를 다리고 좌선암으로 와서는 날마다 물길어오너라 밥을 지어라 산에 올라가 나무 해오너라 방쓸고 걸레질을 정하게 살저라 읍에 가서 먹을것을 사오너라 이러케잔심부름을 시킬뿐이요 무예에대해서는 무란 말한마디도업에서 나오는일이업스나 그래서 점룡이도 속마음으로 별생각을 다해보앗스나 그럼 점잔흔 어른이 설마그짓말이야 하랴 필경은 무슨까닭이 잇겟지하는 생각으로 그저아무말도업어 입중군이 시키는대로 부지런히 수종을 드더욱공손하게 선생님 선생님하며 정다웁게 어리광비슷한짓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자미스럽게지내엿다。

이러케지내가는동안 세월은 물흐르듯해서 어느듯그해도 다 지내가고 그이듬해 점룡이가 열네살되는 해가 되엇다。어느날 입중군이 광주골까지 무슨 볼일로잠깐 갓다가 돌아와보니 점룡이가 뵈이지 안허서

『점룡아 점룡아……허허 이애가 어디를 갓나……오 올치 아직 나이 잇스니까 나 업는새 동네 아이들과 놀러간게로군……』

하며 무심히 참선하는 법당에를 들어가니까 점룡이는 두문을 떡같고 단정히 꿇어안젓는데 아주 그 정신은 극락세계에서 노는 모양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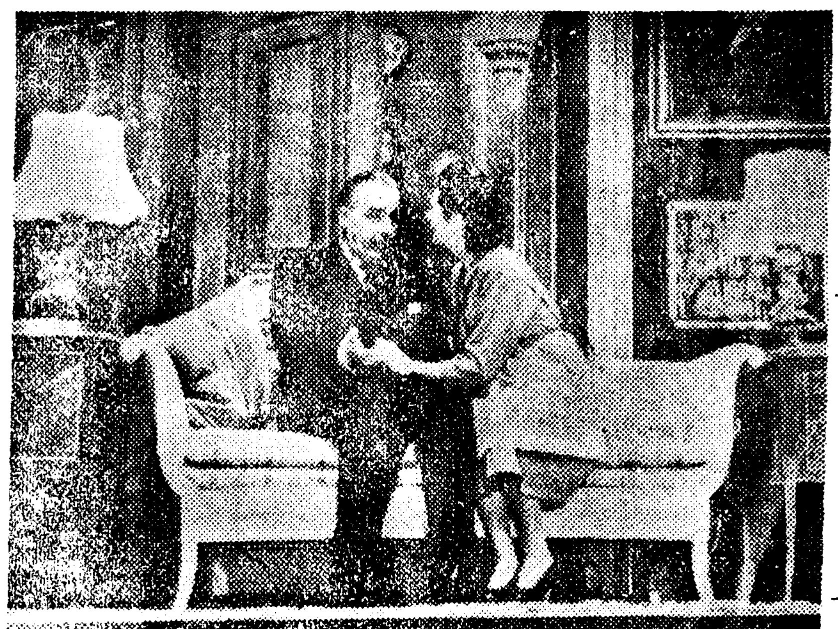
그래서입중군은 점룡이의 담력을 시험해보려고점룡이 뒤로 슬슬 돌아서 손에쥐어든 부채끝지로 점룡이의 어깨를 떠러지거라하고 내리쳣다。

揭示板

"水仙花"試寫會 二十日頃으로決定

조영(朝映)의『새출발』의 다음작품『수선화(水仙花)』는드디어 촬영에 이르러 전부완성을 보게되어 오는이십일전후에 시사회를 할예정이나그 봉절공개는 아프로의 조흔시기를 기다리어 오는구월경까지 연기하기로 되엇다한다。

戰爭劇"밤은안오리"의舞台面…③… 사진은 위로부터 제오장제륙장



米新作戰爭劇 밤은안오리

第五幕…이 정을 위협하여 목고 전쟁은 이고요한 가기시작한다。그래서『발코넨』박사는그의 안해에게『아메리칸』로 돌아가잇기를권하나듯지안는다。그는속어도남편을 따라 죽겟노라맹세를한다。

第六幕…『에릭크』의힘으로이해는 이미 자근하여서 젊은 간호부로 나선다。그는남편 그의남편 즉『발코넨』박사의 아들의 주검을 전햇다。전아는사람 섭섭을 밧는사람 그들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사람가치 말이업시 누물을 수채우득할뿐이다。(게속)

"뉴ー쓰"映畵"朝鮮"配給 ~아직도問題未解決~

일본『뉴ー쓰』사의 조선배급문제는 의연이 해결되지못하고 그대로 지금껏 남아잇서서 이미 조직되어잇는 내국의 배급소에잇서서도 원만히 이이야기가 진전되지안흠뿐아니라 동사의『푸린트』갑에대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잇스므로 일대난판에 봉착하여 지금것 미해결대로 걸어오고잇는바 각 상설관에서는『뉴ー쓰』제일보 배급의 유월재상수는 방금 목전에촉박하고잇스므로 각관에서 다량하여 직접 본사로주문을하기는 하엿스나 그러케 하기위해서는 각관마다 상당히 비용이 들어서 아무래도 중간의배급기관이 필요하게되엇다한다。하루래도 이배급문제의 해결을 느즈면느즈록 문제는더 분규를 거듭하게될뿐만아니라 거기따라 각관의손해도 만하지므로 머지안허 총독부 관계당국과 배급조합이 이문제를 가론하고 새로이 배급기관을 만들어내기로이 보인다한다。

趣味娛樂

"流行"의"混紡"

▼…어지로과 가치 초비상시에도 유행이 의연 왕성하고 잇슬까。잇다 우리는 서울의 거리에서、거리를 바뀌하는 여성들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에 확실 볼수잇다。

▼…일찌기 불란서에서 방이 새로운 유행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 나타나는것을 활하는그들이、가령『샤넬』을 신는것의 그룹들을 지려한바 잇거니와 이제 한걸음 나아가서 비상시다운 유행의 갈길을 바라보아 장기저에 대세한 물자사용할한 견지에서 보기로 하자。

▼…면、화직、양모、욕면등의 중요한 물자의 법령으로 사용제한을 밧고 잇는것은 벌서 어제의 느낌이잇고、오늘날에는 대용양옥 대용가속、『스·파』가 득한 현상이다。

▼…천자로 말하면 여유잇는것은 극도에 속하는지와 또는 극도로 물레시에 신경실에 봉착한 일반 소비층은 누구의 구호에 맞추어 플러서 어쩔지를 모르는것 서잇지 판연히 두가지 경향으로 갈려서잇슴을 보게된다。하나는 물재절약의 철칙는 반대로 남어잇는물적을 사용하여 그것을 곳 반정을해야 마땅한것이다。

▼…유행의 갈길을 바라보아 소비항목으로 결단 창단되는 현상이오 하나는물자 가치 하는것이오 불하여 시대의 시각과하게 보조를 맞추어 유행의 실천하여 절약의 의의를 무해하여 가리피회의 날용어 천제되는 사용 가지 양으로 비상식적인 흉은 외국에 비추어 물지의 정신 하이의 그자체가 비상식적인 흉은 해야한다。즉 유행의 정신을 함께『물편』의 정신 에도한계의 질서가 유지되어야한다。여기에는 한동의 규정이된다。그러나 미의본 겁을 떠나서 안될것은 물론이다。어떠한 조화도 이루지못하고 다만 비판을 것는것이나 또는 감상적으로 물자절약의뜻을 해석하는것은 결국 오늘과가른 유행의 호흡을 일오키고말뿐이다。

雙Q生

紳士는 저녁때죽는다

【클리ー브랜드】(美國)『마흔부터 일흔살까지의 신사는 오후여덟시부터 아홉시까지의 휴양시간중의 자동차사고의 희생이되기쉽다!』

최근『클리ー브랜드』의 시편(檢死官)『가ー버ー』씨는 교통사고의 흥미잇는 통계를 발표하엿다。

(1) 어린이들사십세까지의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월등히 만흔데 교통사고희생자 중에는 일상 노동에 종사하고잇는사람들이 그의에는 절대로 부유층이엇는 지금껏 엇다。

(2) 남자가 여자의 사배로서 보인의 희생자는 겨우 일백명이 그중에도 젊은이 젊은이 녀자가 희생되는 희귀하여 엇다。

(3) 사고사의대부분은 특히수말(週末)이나 제일(祭日)이엇다。

(4) 어둡에 비하여 아이는적다그러고 아이들은 비교적 어처녀사고가 한다 밤으로(가ー버ー)씨는 다음과가튼 결론을 나리고잇다。

(5) 신사는 저녁때가 위험하다 (B)부인들이 비교적 이수하다 (C)젊은이가 제일위험한 (D)낫에는 사고가 적다。

老童座 서울公演 十五日부터 "東劇"에서

평양(平壤)의금천대좌(金千代座)를 배경으로하여 조직된 극단 노동좌(老童座)일행은금 십오일부터 다섯동안 시내동양극장(東洋劇場)무대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단기 주간공연을 하게되엇다는바 상연할 각본은 홍개명(洪開明)씨작『백일홍(百日紅)』삼막으로서 특히 이 극본은 홍씨가 노동좌의『허로인』최선(崔仙)양을 위하여 지은바 작품이만치반도시 서울의 연극"팬"에게 선서만만하여 일파의 배우진용을바 드리라 자부하며 또 일부 새로소개하면 다음과가다。

▲崔仙 ▲河之滿 ▲石臥佛 ▲孫沈泉 ▲李和 ▲黃鐵 ▲宋海天 ▲元在辰 ▲金麗寶 ▲姜石燕 (以下略)

(사진은一座의"히로인"崔仙양)

名劇"支那의밤" 特別料金으로!

『백란(白蘭)의노래』이상의 열망적 기대속에오르게 동경을 기다리고 잇던 동보(東寶)의『지나(支那)의밤』은 장곡천일부(長谷川一夫)이향란(李香蘭) 두 명『컴비』의 주연으로서 시내 약초극장(若草劇場)에서 지난 십사일부터 봉절하여 오는 이십일까지 계속할 작정이바 요금은전후편 하나만을 가지고서 흥행하여 질서적으로 특별요금을밧기로되엇다。

"로ー젠"新契約

『유니버ー살』은 『프렛·로ー젠』 감독을 계약하고 『오리ー프·쿠ー퍼ー』의"알젤진"의 밝을 제작하기로 되엇다。『스탑』은 아직 미정이지만 대개는『알리스·페이』가 주연할모양이다。

放送 (JODK 프로)

十五日(土)

▲午前 六時〇分 (東)라디오體操

▲七時〇分 宮城遙拜

▲同 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오늘아려드실것

▲午後〇時〇五分 笛과尺八 (레코ー드)

▲同〇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職業婦人의衛生」京城府民病院産婦人科長 醫學博士 尹泰權

▲同四時〇分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連續이야기『六男妹』(三) 張孝讓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〇分 週間情報

▲七時三〇分 뉴ー스 天氣豫報

▲同八時〇分 講演 五億圓의貯蓄(一)『貯蓄과物價』總督府財務局長 水田直昌 通譯全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푸른大地"—李瑞求編 源韻 張 泰 華船 … 月峰 申佐 珍 李順 朴老人 李 霞 山 靑年(一) 宋 在 啓 靑年(二) 全 景 希 演出 洪 再 星

▲同九時 歌曲 一、羽調頭擧 二、平調中擧 三、弄四、界樂五、編 金一順、曹錦順、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李一峰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ー

十六日(日)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 午 (東)時報 오늘의아두실것

▲午後零時五分 京畿立唱 一、놀냥 二、압山打鈴 三、뒤山打鈴 四、개고리打鈴 五、방아打鈴 李命山 李命吉 卓福萬 金奉連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 名曲鑑賞(레코ー드) 피아노協奏曲 第二番C短調 베ー토벤作曲 解說李 興烈

▲同四時 뉴ー스

▲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愉快한牛乳配達夫 二、사과나무아래서 三、鷄鳴 編曲 韓國舞曲 四、마리넬다 五、進擊追擊 宋 一 元

▲同七時五分 講演 農業의國調(一四)『物價統制와農村의態度』水原高等農林學校教授

▲同七時五五分 農業뉴ー스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天氣豫報 諸 伯 鎭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歌 趙錦玉 韓成俊

▲同八時三五分 管絃樂—京城府民館의第五第六 브랄스作曲 一、舞曲 第五第六 二、劍牙挪民謠(?) 우부리中誕 三、舞曲 요한슈트라우스作曲

▲同九時五分 라디오小說"마음" 故 林和 作曲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ー스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城)新日本音樂 ▲同一時(名) 傷病將士慰問의午後 ▲同一〇時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同六時(大)紀元二千六百年奉祝慶祝大會實況 ▲同六時(大)滿洲消息 ▲午後六時二五分(東)文化講座 ▲同七時三〇分(城)管絃樂 ▲同八時三〇分(東)도라마 ▲同八時五〇分(東)新內 ▲同八時三〇分(東)舞蹈劇

第一放送 (十五日)

▲午後零時五分(東)土曜コンサート ▲同六時(東)歌稽古 ▲同六時二五分 (札)傳說童謠 ▲午後七時四〇分 (東)講演 ▲同八時(各局)日曜歌 ▲同八時三〇分(東)舞蹈劇 ▲同一〇時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六四) 金鳳姬 ▲同一〇時氣象通報·라디오메모·明日曆

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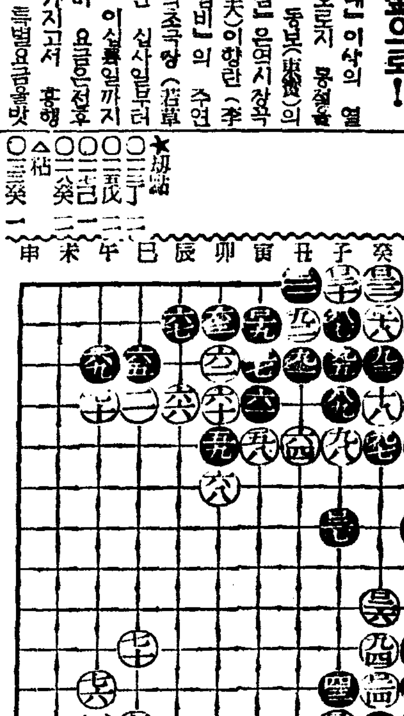
綠陰下新人熱戰譜

逐鹿未知疾足 隱鹿白也自絶于中宮

觀戰記 權 秉 郁

白 李鉉敎 · 黑 沈福綿 (四目半込出)

【9】



黑○一三甲 ●一五乙 ○一七丙 ●一九丁 ○二一戊 ●二三己 ○二五庚 ●二七辛 ○二九壬 ●三一癸 ○三三子 ●三五丑 …

(局面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黑은 一九六〇의 天元一路로 三四、二三을 꾀한 所用으로 쌀기를 되하나 白은 一七에 도로 살기를 되하나 首鼠兩端이다。白은 조롬 여 길을 피하여 黑 一二七은 黑中央一點을 따고보니 四通五達의 사방으로 좋아나가하나 …

[illegible]

男子의 夢遊病

惡習者는 惡夢을꾸다

幼年時代에 惡習을 붓고 痴終에 大將이되려고는 이 … 專賣特許의フーブ眞空 吾國唯一 …

東京眞空療法研究所

東京中野區城山町二六 振替東京七六二番

美活石鹼 미활비누

製造本舖 大阪 株式會社 吉田久四郎商店

優美館

六月十六日より 森の石松 男の日 新興キネマ超特作 全 城 隍 堂 ヴァリエテの乙女 本邦 獨逸ウファ社超特作 六月十三日より大公開

明治座

6月13日ヨリ上映時間表

皇國の妻	10·00		
元祿兄弟鑑	11·38	3·23	7·10
ニユース 日本ロン 優ドン 一駿ン 走爆	12·47	4·32	8·19
皇國の妻	1·46	5·23	9·10

若草東寶

6月14日より上映時間表

動物を食ふ植物 ニユース	12·05	5·05
支那の夜	12·25	5·25
動物を食ふ植物 ニユース	9·30	2·35	7·40
支那の夜	9·50	2·55	8·00

劇團高協 巡回日程

十二日 十三日 南 羅州 十四日 十五日 吉州 "春香傳" 어머니

大陸劇場

12日時間表

君若き頃	11·00	2·55	7·00
ニユース	12·25	4·20	8·25
涙の責任	12·40	4·35	8·40

京城寶塚劇場 黃金座改め

6月13日より19日マデ

峯笛の唄	11·25	3·06	6·45
歴史後篇	11·35	3·15	6·55
ニユース	1·00	5·10	8·50
忘却の沙漠へ	10·00	1·40	5·20	9·00

京劇

十五日ヨリ廿一日マデ 太平洋行進曲 黃金道中 ニュース

第一劇場

第九交響樂 夜の鍵 親父三重奏

和信映畵館

大日本ニュース 滿映ニュース 山と闘ふ 笛の歌

東洋劇場

春香傳 全篇

新富座

鐵窓の廳召兵 都會の雷鳴 女こそ家を守れ

桃花劇場

春よいづこ 女の風俗 眞紅の森